



한국인의 식품소비 트렌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최근 ‘한국인의 식품소비 트렌드 분석’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본고는 계속소비 패턴과 소비자 트렌드에 대한 내용을 일부 발췌해 게재한 것이다.

1. 서론

우리나라의 식품소비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양적인 성장 단계에서 질적인 성장 단계로 전환했으며, 식품소비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식생활 패턴도 빠르게 변화해왔다.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의 급진전, 전반적인 경기 불황 지속과 중산층 감소, 신세대 및 여성의 소비시장 주도경향 등 소비환경이 급변하고, 이를 반영하는 새로운 사회적 트렌드가 등장해 식품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품소비 트렌드는 식품에 대한 소비 태도와 니즈의 변화가 일반화된 것으로 미래를 읽고 이끌어가는 힘이 되므로 소비 트렌드에 대한 검토는 식품 공급자에게는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에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

한국인의 식품소비 트렌드는 외식 비중 확대, 건강 중시, 맛 지향, 간편화 추구 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의 식품구매 패턴은 요인분석을 통해 건강 지향, 고급화, 다양화, 간편화, 합리화로 도출되었다. 육류의 경우 국내산 쇠고기가 고급화로 차별되고,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맛과 건강 지향 성향이 우세하였다.

2. 식품소비지출 변화의 주요 특징

1) 식품소비단계의 전환

식품소비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영양을 충족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1인당 식품소비량이 포화수준에 접근할 때까지 증가하며, 포화수준을 지나면서 식품소비의 양적인 증가는 멈추고 질적인 내용이 변화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까지 식품소비가 양적으로 확대되어 포식단계에 도달했으며, 이후에 소비량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는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식품소비는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그 전과 구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단계에서 소비자들은 식품섭취로부터 얻는 포만감 이외에 맛, 포장형태, 영양, 안전성 등 질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게 된다.

2) 식료품비 구성의 변화

(1) 식료품비 비중 저하

가구의 소득수준이 향상될수록 소득 증가

폭에 비해 식품소비 증가는 상대적으로 적어지며, 이에 따라 가계비 지출(또는 소득) 중에서 식료품비의 비율을 나타내는 엔겔계수는 갈수록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실제 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지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시기별로 증가율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식료품비 지출액 증가율은 소비지출 증가율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1). 2000년 이후 가구의 식료품비 증가율은 연평균 4.4%로 소득 6.3%, 소비지출 5.5%보다 약간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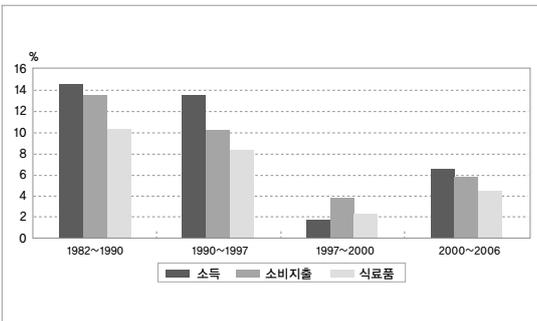
(2) 외식 지출비중의 급격한 증가

① 가구의 외식 지출비중

식품 지출비 변화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가정 내 지출비중이 감소하고 외식 지출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그림 2). 외식은 1990년만 하더라도 곡류 및 빵류의 점유율 20%와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2004년 46.6%까지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이후 46% 수준을 유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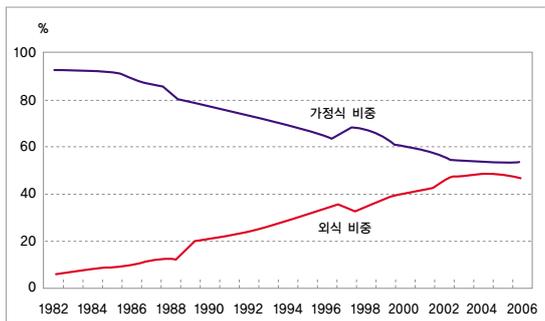
② 주요 육류의 외식 소비 구조

〈그림 1〉 식료품비 연평균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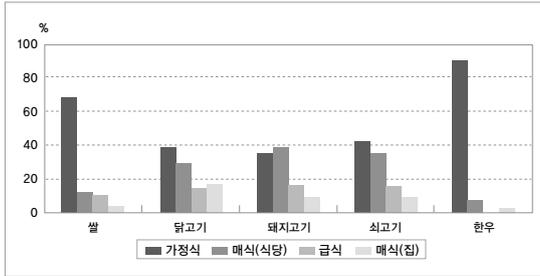
※주 : 근로자가구 기준
 ※자료 : 통계청(<http://www.nso.go.kr>)

〈그림 2〉 가정식 및 외식 지출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http://www.nso.go.kr>)

<그림 3> 품목별 수요처별 섭취비율(2005년)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영양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육류 중에서 가정식 소비비중이 가장 큰 품목은 쇠고기로 43.3%가 가정 내에서 섭취되었으며,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각각 38.8%와 36.6% 수준이었다.

반면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음식점에서 먹는 비율은 돼지고기가 39.6%로 가장 높고, 쇠고기와 닭고기는 각각 35.4%, 30.2%에 달하였다. 닭고기의 경우 치킨에 힘입어 배달음식 비율이 16.8%로 다른 육류에 비해 월등히 높은 특징을 보인다.

3) 미국의 식료품비 구성 변화와 시사점

(1) 식료품비 지출 변화

미국의 식료품비 지출추이를 품목별로 구

분하면 곡류, 육류, 해조류, 달걀류, 과일 및 채소류의 지출비중은 감소했으며 유제품과 주류는 정체상태에 있다.

최근 새롭게 나타나는 식품소비의 특징은 소비 증가와 육류의 경우 가금육의 적색육 대체현상이다.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육류 중에서 지방 함량이 낮고 조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가금육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표 1). 육류 중에서 가금육 비율은 1980년 24.4%에서 2005년 40.1%로 급격히 증가했다.

(2) 시사점

미국의 식료품비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식료품비 구성의 변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가구의 소득수준이 향상될수록 가계비 또는 소득 중에서 점하는 식료품비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으로 향후에도 관찰될 것으로 보이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감소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식료품비에서 외식 지출

<표 1> 미국의 1인당 곡류 및 육류 소비량 변화

(단위 : 파운드)

구분	항목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곡류	전체	135.1	147.0	185.7	199.5	194.9	192.1	193.3	192.2	192.3
	밀가루	111.0	117.3	139.1	146.3	141.0	136.7	136.6	134.3	134.1
	쌀	7.2	10.1	16.6	19.3	19.2	20.0	20.6	21.2	21.0
육류	적색육	131.7	126.4	112.3	113.7	111.4	114.0	111.6	112.0	110.0
	가금육	33.8	40.8	56.3	67.9	67.8	70.7	71.2	72.7	73.6

※ 주 : 곡류는 1970년(1970~74년), 1980년(1980~84년), 1990년(1990~94년) 평균 소비량

※ 출처 : USDA, ERS, Putnam, Allhouse & Kantor(2002)에서 재인용

비중은 일본과 미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확대 되어 왔고, 현재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외 식 지출비중은 향후에도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증가추세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식품류별 지출비중은 나라에 따라 식품소비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건강중시 경향이나 다양한 식품 소비 섭취 지향은 국가마다 공통적인 현상이므로 장기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미국의 적색육 소비 감소와 가금육과 곡류의 소비 증가 추세는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새로운 소비패턴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3. 식품류별 소비 형태

1) 식품 구입패턴별 소비자 유형 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분류된 5가지 식품 구입 패턴을 바탕으로 소비자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했다. 군집분석 결

과 5가지 군집이 도출되었으며, 군집별로 소비자의 인구통계변수 및 식품 구입형태를 교차분석을 통해 군집별 소비자 특성을 도출했다(표 2).

가격, 건강 지향 소비 집단은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다수를 차지했고, 다양화나 고급화 소비 집단의 경우는 40대가 주를 이루었다. 간편화 소비 집단은 30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다양화, 고급화, 간편화를 지향하는 소비 집단은 주로 400만원 이상의 소득 가구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격 지향 소비 집단은 200만원대 이하의 저소득 가구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 지향 소비 집단에 200만~400만원 소득가구가 많은 것은 60세 이상 연령층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격 지향과 다양화 지향 소비자군의 경우 매일 식품을 구입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간편화 지향 소비자는 주 1회 구입비율이 높아

〈표 2〉 군집별 특성 결과

(단위 : 파운드)

집단	연령	소득수준	식품 구입주기	외식빈도
가격 지향	60세 이상 (28.4%)	200만원대(29.6%) 200만원 미만(23.1%)	매일 구입	낮은 편
건강 지향	60세 이상 (40.0%)	200만원대(29.6%) 300만원대(26.9%)	주 1회 구입	낮은 편
다양화 지향	40~49세 (33.0%)	400만원 이상(36.3%) 300만원대(25.7%)	주 2~3회 구입 매일 구입	가장 높음
고급화 지향	40~49세 (27.0%)	400만원 이상(32.0%) 300만원대(26.4%)	주 2~3회 구입	높음
간편화 지향	30~39세 (29.2%)	400만원 이상(32.3%) 300만원대(32.3%)	주 1회 구입	높음

※자료 : 서울시 621가구 대상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표 3〉 식품 구입시 고려 기준 순위

(단위 : %)

순위	쌀	채소	과일	육류	가공식품	수산물	반찬류, 냉장식품	매장조리식품
1	맛 (32.0)	신선도 (68.5)	맛 (74.6)	안전성 (48.5)	브랜드 (28.2)	신선도 (81.9)	구입 안함 (19.8)	맛 (33.8)
2	가격 (22.6)	안전성 (18.0)	안전성 (16.3)	원산지 (15.5)	유통기한 (13.7)	원산지 (5.0)	유통기한 (18.8)	구입 안함 (19.5)
3	안전성 (12.8)	맛 (5.6)	가격 (4.7)	가격 (9.2)	선별, 포장상태 (13.0)	선별, 포장상태 (3.2)	맛 (17.9)	유통기한 (19.2)

※주 : 소비자설문조사에서 신선도 항목은 식품류별 특성을 감안하여 재분류함.
 ※자료 : 서울시 621가구 대상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대조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간편화 지향 소비자군은 외식에 대한 소비와 김치나 장류를 구입해서 먹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양화 집단은 비교 집단 중 외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식품별 구입 특성

식품 구입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과일과 쌀은 맛을 고품질의 최우선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채소 및 수산물은 신선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비율이 높고, 채소의 경우 친환경 경여부를 중요한 척도로 평가하고 있다(표 3).

육류는 안전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국내산 여부를 고품질의 중요한 척도로 평가하고 있다.

냉장식품 및 즉석조리식품은 소비자의 약 20%가 구입하지 않고 있으며, 신선도와 맛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을 위해 구입을 늘린 품목은 과일, 채소, 잡곡, 우유 및 유제품, 수산물로 이들 품목의 경우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3) 육류의 구입형태와 구입이유 및 빈도

(1) 닭고기 구입형태

닭고기는 냉장육(95.1%)과 비포장육(66.5%)의 형태로 구입하고 있으며, 연령층이 낮을수록 포장육과 양념육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또한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브랜드육 구입비율이 71.8%로 높았다.

닭고기 구입형태는 1마리 통닭 형태(66.9%)가 아직까지 높아 부위별 구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주부 연령이 낮을수록 부위별 구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5).

(2) 닭고기, 돼지고기 구입이유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구입이유를 조사해 본

〈표 4〉 구입한 닭고기, 돼지고기 포장형태 (단위 : %)

구분	돼지고기	닭고기	
냉장/냉동	냉장육	90.3	92.8
	냉동육	9.7	7.2
포장형태	비포장육	84.9	60.7
	포장육	13.9	37.8
	양념육	1.2	1.5
브랜드육 여부	그렇다	55.1	71.8
	아니다	44.9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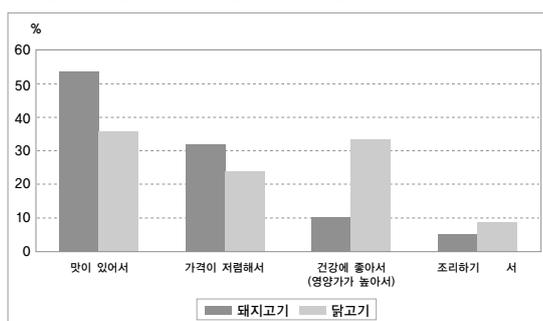
※자료 : 서울시 621가구 대상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표 5〉 구입한 닭고기 형태 (단위 : %)

구분	1마리 통닭	1마리 절단육	부위별	기타	합계	
전체	69.9	28.0	11.2	0.6	100	
주부 연령	20대	56.7	25.6	29.8	0	100
	30대	66.4	27.5	16.8	1.5	100
	40대	71.8	34.6	8.8	1.3	100
	50대	73.9	28.4	7.2	0	100
	60대 이상	72.1	22.6	5.9	0	100

※주 : 주부연령층별 X^2 검정의 p-value < 0.001
 ※자료 : 서울시 621가구 대상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그림 4〉 돼지고기와 닭고기 구입 이유



※ 자료 : 서울시 621가구 대상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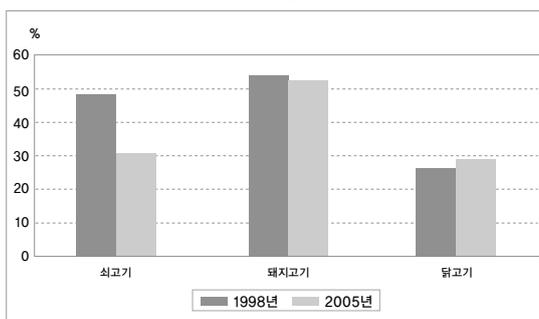
결과, 우선 돼지고기는 과반수가 맛이 있기 때문에(50.7%)라고 응답했으며, 특히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 가구에서 맛 때문에 선택한 비중이 높았다.

닭고기도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맛(33.6%)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돼지고기와는 달리 영양가가 높아서(30.9%)라는 의견도 많았다(그림 4).

(3) 육류의 구입 빈도

육류의 섭취 빈도 추이를 살펴보면 쇠고기와 닭고기는 주 1회 섭취비율이, 돼지고기는 주 3~4회 섭취비율이 가장 높는데 품목에 따

〈그림 5〉 육류의 주 1회 이상 섭취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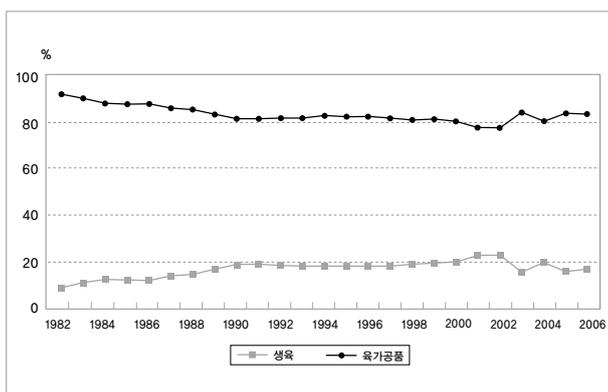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1998, 2005 「국민건강·영양조사」

라서 섭취 빈도가 달라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가 1998년에는 주1회 이상 섭취비율이 각각 48.8%, 54.0%에서 2005년에는 각각 30.8%, 52.3%로 감소했다(그림 5). 반면 닭고기는 25.2%에서 29.2% 소폭 상승했다.

가계의 육류 지출액 중에서 육가공품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약간의 등락이 있으나 20%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

〈그림 6〉 육류 중 생육과 육가공품 지출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http://www.nso.go.kr>)

4. 식품소비 트렌드와 농업의 대응방향

1) 식품소비지출 전망

(1) 외식 지출비중 전망

가계비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향후 소득 증가추세를 감안할 경우 2006년 26%에서 2020년에는 21~22%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식 지출비중은 식품소비의 간편화와 다양화 경향에 따라 향후 증가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2006년도에 한 달 동안 외식소비를 안 한 가구가 전 가구의 7%에 불과할 정도로 외식소비가 일반화 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식 지출 비중은 미국이 41% 수준에서 안정화 되어 있다.

가정식과 외식의 코호트 분석결과를 이용하

여 가정식과 외식의 비율을 추정된 결과 외식 비중은 2006년 46%에서 2010년 48%, 2020년 5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6).

가정식과 외식 지출액 전망은 코호트 분석 결과의 연도효과는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2010년과 2020년 인구 연령층별 인구수전망에 연령더미를 적용했으며 코호트 변화추세를 감안하여 코호트더미를 고려하였다. 고령층의 외식소비가 감소하는 세대효과에 따라 고령화 확대는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식의 지출탄성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소득계층의 경우 외식의 지출탄력성이 가정식에 못 미친다는 사실도 이러한 전망결과를 뒷받침한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조리·반 조리식품 시장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정식사 대용식의 확대가 지출액 둔화로 나타날 가능성도 크다.

〈표 6〉 가정식과 외식 지출비중 전망 (단위 : %)

구분	2010	2015	2020
가정식	52	49	46
외식	48	51	54
합계	100	100	100

(2) 식품류별 소비형태 전망

사회·경제·인구학적 여건 변화에 따라 건강지향, 고급화, 다양화, 간편화, 합리화로 요약되는 새로운 식품 구입패턴이 등장했으며,

〈표 7〉 품목별 우세 트렌드

구분	쌀	육류	채소류	과일	양념류 유지류 설탕류	주스	외식
고급화	◎	◎		○			◎
다양화		○		◎	○	◎	◎
합리화	◎						◎
간편화			○				◎
건강지향	○	○	◎	◎	◎	○	◎

전문화

이들 트렌드가 식품소비 형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류 및 품목별로 5가지 트렌드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품목별 특성에 따라 우세한 트렌드가 나타난다(표 7). 예를 들어 육류에서는 국내산 쇠고기가 고급화로 차별되고,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맛과 건강 지향이 우세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식에서는 식품소비 행태에서 나타나는 5가지 트렌드가 모두 반영될 것으로 보이나, 전문화·다양화·합리화 성향이 중심적인 트렌드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식부문에서는 원재료와 서비스에서 고품격을 추구, 저가 가격파괴, 음식별 전문화, 에스닉푸드 등의 전문브랜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기농 재료와 몸에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건강 지향이 강화되며 테이크아웃 등의 증가가 전망된다.

(3) 영양섭취 전망

1인당 에너지 섭취량은 당분간 1990년대 후반 이후 증가추세가 지속되며, 장기적으로는 증가추세가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영양소 섭취 증가추세와 함께 집단별로 섭취 불균형 현상이 확대되어 영양과잉 집단이 증가하고 동시에 영양결핍 집단이 공존하는 현상이 예상된다.

향후 소득 불균등도와 양극화가 확대되고 인구 고령화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소득 및 연령층별 영양소 섭취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 식생활 전망

급속한 산업화와 서구화가 진행되고 사회경제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오랜 전통의 식문화가 붕괴되고, 잘못된 식생활 습관이 확대되고 있다.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지 않을 경우 불규칙적인 식생활과 서구식 식생활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영양불균형이 확대되고 생활습관병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청소년층이 만족스럽지 못한 급식품질, 아침결식, 불규칙한 저녁식사,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 소비 등에 노출될 경우 미래 우리 사회의 건강을 저해하는 심각한 상황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2) 농업의 대응방향

(1) 소비자의 품질 선호에 대응한 생산, 유통, 판매 시스템 구축

소비자의 품질 선호 경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유통, 판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는 가공업과 소매업의 비율을 증가시키므로 생산자는 부가가치를 상당부분 공유할 수 있도록 포지셔닝 해야 한다. 가격프리미엄을 추구할 수 있는 고품질 및 특화 제품으로 다각화하거나,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브랜드 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식품별로 구입특성에 따라 소비자의 선호

경향이 다르므로 품질 경쟁력 제고방향은 각각의 특성을 감안해 설정해야 한다.

육류에서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기능성 제품과 안전성 측면에서 차별화한 제품의 확대 경향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2) 세분화된 소비자계층 대상 판매전략 및 관리대책 수립

소비자계층별로 사회, 경제, 인구학적 여건에 차이가 있고, 선호경향이 다르므로 식품류별 생산, 유통, 판매 전략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소비자계층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소비자 계층은 소득, 연령, 가족구성, 인지 및 경험 등을 바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소득 계층별로 고소득계층, 중산층, 저소득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고, 최저생계비 계층이나 차상위계층 등 보다 세분화된 계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식품소비 및 소비자 정책도 특정계층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영양상 취약계층인 저소득계층, 고령층, 청소년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식품 및 영양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급식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급식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3) 소비자 홍보 및 식생활 교육 적극 추진

식품표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위해서는 유통업체나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표시제도에 대한 교육과 표시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표시정보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매스컴을 통한 언론홍보가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식품표시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특히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급식 및 교과과정을 통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불규칙한 식생활을 개선하고 영양불균형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운동차원의 식생활 교육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가정 내 건전한 식습관 확립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학교에서는 급식 및 교과 과정을 통해 식생활 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

(4) 식품정책 기반 조성

식품관련 정부조직이 농산물·가공식품·수산물·임산물 등 식품종류는 물론 유통단계별로 분산 운영되고 부처별로 다른 정책목표에 따라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소비 트렌드 연구가 주기적으로 추진되어 생산자와 정책 당국에 피드백 되기 위해서는 식품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정부조직의 개편과 정책개발을 검토해야 한다. 광의의 식품을 대상으로 소비트렌드를 모니터링하고, 식품소비 관련 정책과 기반조성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